

청소년용 애착양식질문지의 타당성 검증

장휘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애착척도인 Feeney, Noller 및 Hanrahan의 애착양식질문지(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의 타당성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먼저 척도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적일관성 계수를 계산하였다. 척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요인구조의 부합도를 추정하였고 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 중 어느 것이 한국 청소년들의 애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판별분석이 이루어졌다. 부가적인 타당도 검증으로서 애착의 3범주 및 4범주 척도와 애착양식질문지의 관계가 검토되었다. 분석결과 애착양식질문지를 구성하는 요인구조에서 한국 청소년들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 이미 계산된 신뢰도 계수와 타당도 검증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이 질문지가 한국 청소년들에게 실시될 수 있기 위해서는 애착양식질문지를 구성하는 다섯 개의 구성요인들 중 승인욕구요인 문항과 관계에의 몰두요인 문항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지금까지 연구된 청년기 동안의 애착연구는 대부분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청년기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는가를 규명하고 부모와 동년배 양자에 대한 애착의 상대적 중요성을 비교하는 데 관심을 갖는다(Paterson, Pryor & Field, 1995; Paterson, Field & Pryor, 1994; Raja, McGee & Stanton, 등, 1992; Lapsley, Rice, FitzGerald, 1990; Armsden & Greenberg, 1987; Kenny, 1987). 그러나 이 연구들에서 사용된 애착척도들은 단지 애착의 상대적 차이만을 확인해낼 수 있을 뿐 애착의 질적 특성을 바탕으로 애착유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그 예로서 Armsden과 Greenberg(1987)에 의해 개발된 IPPA(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는

부모문항(28개 문항)과 동년배 문항(25개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16세부터 20세까지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5점 Likert-type의 자기보고형 질문지인 이 검사는 신뢰, 의사소통 그리고 소외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점수와 의사소통점수를 합산한 점수에서 소외점수를 뺀 점수를 개인의 애착점수로 계산하였다.

또한 Raja 등(1992)은 IPPA의 축약판을 사용하여 15세 청소년들의 부모와 또래에 대한 지각된 애착과 그들의 심리적 안녕을 연구하였으며 Paterson 등(1994)과 Paterson 등(1995)은 13-19세 청소년들에게 IPPA의 부모문항을 어머니와 아버지를 구분하여 질문함으로써 어머니, 아버지 및 친구에 대해 각각 25문항씩 거의 동일한 질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연구한 Kenny(1987)는 70문항의 부모관계 질문지(PRQ: Parental Relationship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으나 이 모든 질문지 척도들이 애착을 안정된 대 불안정한이라는 단지 두 개의 범주로만 분류하고 있어 Ainsworth, Blehar, Waters, & Wall(1978)이 구분한 안정된, 회피적 및 불안/양가적 애착유형과 같이 애착의 질적 특성을 세분화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기 동안의 애착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성인의 애착을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은 Hazan과 Shaver(1987)의 애착척도를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Hazan과 Shaver는 영아기에 형성된 양육자에 대한 애착이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의 형태로 성인기까지 계속된다는 Bowlby(1969)의 주장을 기초로 Ainsworth 등이 분류한 안정된, 회피적 및 불안/양가적 애착양식과 상응하는 성인의 애착양식을 측정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가까운 관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단일문항의 자기보고형 애착척도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Hazan과 Shaver의 애착척도는 강제선택 범주척도이기 때문에, 세가지 애착양식들이 상호배타적일 것으로 가정하고 응답자들이 세가지 애착양식 중의 하나에 자신을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후속 연구자들은 Hazan과 Shaver의 애착척도를 바탕으로 범주척도의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애착척도들을 개발하였다. 어떤 연구자들은 애착양식을 기술하는 단일문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각 질문에 대한 응답이 Likert-type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Hazan과 Shaver 척도는 단일문항 척도이면서도 각 문항이 하나 이상의 문제나 차원을 포함하고 있어 중다문항 척도로 평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한 경험적 자료들(Kirkpatrick & Davis, 1994; Feeney & Noller, 1991)은 안정된 애착은 회피적 애착과 강한 부정 상관을 나타내고 불안/양가

적 애착과는 약한 부정 상관을 보이는 반면,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은 사실상 상관이 없게 나타남으로써 세 가지 애착양식들의 상호배타적이라는 가정이 충족될 수 없었다.

또 다른 연구자들(Collins & Read, 1990; Simpson, 1990)은 Hazan과 Shaver의 강제선택 척도의 개별적 진술을 바탕으로 보다 섬세한 문항으로 구성된 애착척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질문지들은 범주척도가 아닌 연속적 척도일 뿐 아니라 애착문항의 기초가 되는 차원들에 대한 평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문항들의 기초를 이루는 차원구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일치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를 기초로 성인애착척도를 제작한 Collins와 Read(1990)는 3-차원구조를 가정하는 반면, Feeney, Noller 및 Callan(1994)이나 Simpson(1990)과 같은 연구자들은 2차원 구조를 가정한다.

또한 애착양식의 수에서도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Hazan과 Shaver가 성인애착의 3범주를 가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Bartholomew(1990; Bartholomew & Horowitz, 1991)는 자기에 대한 모델(긍정적-부정적)과 타인에 대한 모델(긍정적-부정적)이라는 두 개의 차원을 기초로 4개의 애착양식을 구분하였다. 즉 자기와 타인에 대해 긍정적 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안정된 애착양식을 지니고 있다고 분류되고 자기에 대한 부정적 모델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몰두된 애착양식으로 분류된다. 또한 자기에 대한 긍정적 모델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거부적-회피적 애착양식으로 그리고 자기와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 모델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양식으로 분류됨으로써 한 개의 안정된 애착양식과 세 개의 불안정한 애착양식을 가정하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도 Hazan과 Shaver와 동일하게 그들이 제안한 4가지 애착양식을 기술하는 단일문항의 범주척도를 개발하여 성인애착을

연구한 바 있다. 4범주 척도를 사용하여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장휘숙, 1997; Brennan, Shaver & Tobey, 1991; Collins & Read, 1990)은 4범주 척도가 3범주 척도보다 성인기 애착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성인애착을 측정하는 모든 도구들이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였거나 현재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연구대상자들에게만 실시될 수 있어 낭만적 관계의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에게 이 척도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성인애착척도들이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동시에 애착유형을 세분화할 수 있는 질문지 애착척도로서 Feeney와 Noller 및 Hanrahan(1994)에 의해 제작된 애착양식질문지(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가 있다.

이 척도는 다른 질문지 애착척도들과 동일하게 범주척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을 뿐 아니라 애착양식의 수 문제를 분명하게 해결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이 척도를 제작한 Feeney 등은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 양자에서 기술된 특성들을 포함하는 40문항의 질문을 구성하였고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까지 6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설계하였다.

Feeney 등은 그들이 제작한 애착양식질문지를 대학생들에게 실시하고 수집된 자료를 요인분석한 결과 3-요인 해(three-factor solution)와 5-요인 해(five-factor solution)를 해석가능한 요인수로 추출하였다. 전체 변량의 35.7%를 설명한 3-요인(안정, 회피, 불안) 해는 Hazan과 Shaver 척도의 개념과 일치되는 3개의 구성개념을 제시하였다. 대조적으로 전체 변량의 43.4%를 설명한 5-요인 해는 신뢰,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 승인욕구, 관계에의 몰두 및 2차적인 것으로서의 관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3범주의 안정된 애착요인 한 개와 회피적 애착요인 2개 및 불안/양가적 애착요인 2개를 포함하였다. 연구자들은 3-요인에서는 각각 .83, .83, .85의 내적 일관성계수를 그리고 5-요인에서는 각각 .80, .84, .79, .76, .76의 내적 일관성계수를 보고하였고

대략 10주간에 걸쳐 3요인에서는 .74, .75 및 .80의 그리고 5요인에서는 .74, .74, .78, .72, .67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보고하였다.

또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강제선택 애착척도를 독립변인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한 Feeney 등은 3요인보다는 5요인이 안정되지 못한 애착양식을 보다 정확하게 세분하고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5요인을 기초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들은 군집분석을 통하여 5-요인이 3-요인보다 Hazan과 Shaver가 가정한 세 개의 애착집단을 더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추출된 두 개, 세 개 그리고 네 개의 군집 중 네 개의 군집이 가장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군집의 기초가 되는 애착차원들을 더 탐색하기 위해 실시된 판별분석결과에서도 네가지 애착양식의 증거가 제시됨으로써 애착의 3범주보다는 4범주가 성인애착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2-13세의 중학교 청소년들에게 이 척도가 실시되었을 때 높은 내적 일관성과 유의한 타당도가 제시됨으로써 Feeney 등(1994)은 이 척도가 청소년들에게도 실시될 수 있는 효과적인 애착척도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 연구에서는 이성과의 낭만적 관계의 경험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에게 실시될 수 있다고 가정되는 Feeney 등(1994)의 애착양식질문지가 애착의 질적 특성을 세분화할 수 있는 청소년용 애착척도로서 타당한가를 검토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애착양식질문지의 신뢰도를 검토하고 타당도 검증으로서 요인구조의 확인과 함께 3범주와 4범주의 애착유형 중 어느 유형이 한국 청소년들의 애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도 함께 규명하려고 한다. 이 연구에서 규명하려고 하는 구체적 문제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Feeney 등의 애착양식질문지의 신뢰도는 어떠한가?

2. 애착양식질문지의 타당도는 어떠한가?

1) 애착양식질문지의 요인구조는 어떻게 구성

되어 있는가?

2)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 중 어느 것이 한국 청소년들의 애착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3) 3범주 및 4범주 척도와 Feeney 등의 애착양식 질문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대전시내에 위치한 남녀 공학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을 연구대상자로 표집하였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누락한 학생들을 제외한 최종 분석대상자들은 552명으로 그 중 남자 중학생 129명, 여자 중학생 115명, 남자 고등학생 152명 그리고 여자 고등학생은 156명이었다. 검사는 수업시간을 이용하여 연구자에 의해 직접 실시되었으며 검사 실시시간은 약 30-40분간 소요되었다. 중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3.48세(SD=3.20)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평균연령은 16.15세(SD=0.72)였다.

2. 척도

1) Hazan과 Shaver의 3범주 애착척도

안정된, 회피적 그리고 불안/양가적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상에 표시하게 한 다음, 위의 세가지 애착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애착양식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분석결과 7점 척도상에 응답하게 한 결과와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하는 범주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결과가 단지 1%미만에서만 차이가 있어 무시해도 좋을 정도였다. 더욱이 이 연구의 목적이 범주의 비교에 있기 때문에, 세가지 애착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하는 범주 하나를 선택하게 한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2) Bartholomew와 Horowitz의 4범주 애착척도

자기에 대한 긍정적 모델과 부정적 모델 및 타인에 대한 긍정적 모델과 부정적 모델을 기초로 형성된 안정된, 몰두된, 두려워하는/회피적 그리고 거부적/회피적 애착양식, 각각을 설명하는 문장을 주고 Hazan과 Shaver의 척도와 동일하게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7점 척도상에 표시하게 한 다음, 이상의 네가지 애착양식 중 자신과 가장 잘 일치한다고 생각되는 애착양식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3범주 척도에서의 동일한 이유로 후자의 결과만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3) Feeney, Noller 및 Hanrahan의 애착양식 질문지

Hazan과 Shaver의 3범주 척도와 Bartholomew와 Horowitz의 4범주 척도, 양자에서 기술된 특성들을 포함하는 40문항의 질문지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문항번안은 한국어를 잘 아는 미국인에 의해 교차체크되는 절차를 거쳤다. 전체 40문항 중 신뢰요인 8문항,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요인 10문항, 승인욕구요인 7문항, 관계에의 몰두요인 8문항 그리고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7문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지 않다(1)에서 매우 그렇다(6)까지 6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3. 자료분석

애착양식 질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SAS 6.12버전을 사용하여 내적일관성 계수를 계산하였고, 구성요인들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LISREL 8.03판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애착양식 질문지의 구성요인들이 애착의 3범주 및 4범주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판별분석은 물론 애착양식 질문지의 타당도 검증의 일환으로 수행된 애착의 3범주 모델 및 4범주 모델에 따른 애착양식 질문지의 각 요인들에 대한 변량분석은 SAS 6.12버전에 의해

이루어졌다.

결과 및 해석

1. 애착양식질문지의 신뢰도 검증

애착양식질문지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5개 요인 각각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원자료에 대한 Cronbach alpha와 표준화된 자료의 Cronbach alpha를 계산하여 제시하면 <표1>과 같다.

<표1> 5개 요인의 신뢰도 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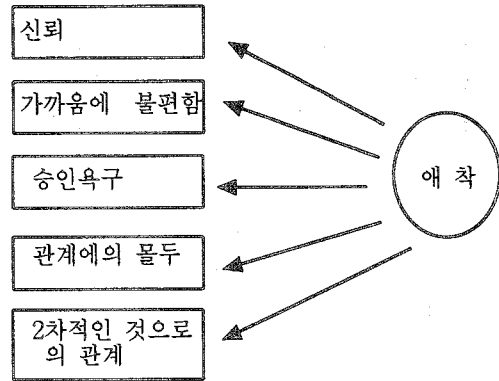
요인	원자료 alpha 계수	표준화된자료 alpha 계수
신뢰요인	0.791	0.790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 요인	0.743	0.744
승인욕구	0.615	0.618
관계에의 몰두	0.585	0.577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0.684	0.684

<표1>에 의하면, 원자료에 대한 alpha 계수와 표준화된 자료의 alpha 계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 계수 값의 추정이 신뢰롭다고 볼 수 있었다. 애착양식질문지를 구성하는 5개 요인의 alpha 계수가 0.57에서 0.79 사이에 분포하였으며 특히 관계에의 몰두요인과 승인욕구요인의 alpha 계수가 다른 요인들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애착양식질문지의 타당도 검증

1) 애착양식질문지의 요인구조

Feeney, Noller 및 Hanrahan(1994)은 <그림 1>과 같은 애착양식질문지의 구조를 가정하였다. 이 구조가 한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이 실시되었다.



<그림 1> 애착의 요인구조

확인적 요인분석결과 <표2>와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2>에서 모델 1은 Feeney 등의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을 바탕으로 요인구조를 분석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반적인 지수들 중 GFI가 0.9이하이고 현실적 지수를 나타내는 AGFI, 비표준부합치인 NNFI 및 표준부합치인 NFI가 모두 0.9이하일 뿐 아니라 원자료의 행렬과 재생산 행렬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RMR이 모델의 부합도를 유의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지수를 검토한 결과, 승인욕구요인과 관계에의 몰두요인 사이에 오차간 공변량이 존재하여 모델 1을 수정하였다. 수정결과 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가 향상됨을 보여주는 수정모델 1이 도출되었다. <표 2>를 통하여 수정모델 1의 GFI는 물론 전반적인 지수들이 유의한 값을 나타낸다는 것이 확인될 수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Feeney 등(1994)이 <그림 1>과 같은 애착의 요인구조를 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착양식질문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의 구조가 <표 2>를 참고할 때 한국 청소년들과 미국 청소년들에서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승인욕구요인과 관계에의 몰두요인 문항의 보완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표 2> 모델의 적합도 평가

모델	X ²	df	확률치	GFI	AGFI	NNFI	NFI	RMR
모델 1	142.74	5	0.0	0.89	0.68	0.63	0.81	0.09
수정모델 1	25.06	4	0.0	0.98	0.93	0.93	0.97	0.03

2)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애착양식질문지의 타당도를 검증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판별분석은 애착양식질문지의 각 구성요인들이 세 개의 범주 및 네 개의 범주와 어떤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애착의 3범주 모델과 애착양식질문지의 관계를 판별분석한 결과 *Wilks' Lambda* 값이 0.7021(p<.0001)로서 애착양식질문지의 다섯 개 요인이 세 가지 범주를 유의하게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할 때 다섯 개 구성요인들의 평균 설명량은 약 11%였으며 각 구성요인별 설명량은 신뢰요인 15%, 가까움에 대한 불편요인 14%, 관계에의 몰두요인 11%,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8%, 그리고 승인욕구요인은 6%로 나타났다.

또한 판별분석으로 도출된 2개의 함수식 중 함수식 1은 신뢰요인, 가까움에 대한 불편요인, 관계에의 몰두요인, 승인욕구요인 및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순으로 세 개의 범주에 영향을 주고 있었고, 함수식 2는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가까움에 대한 불편요인, 관계에의 몰두요인, 승인욕구요인 및 신뢰요인 순으로 세 개의 범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애착의 4범주 모델과 애착양식질문지의 관계를 판별분석한 결과는 *Wilks' Lambda* 값이 0.6958(p<.0001)로서 3범주 모델과의 관계에서와 동일하게 애착양식질문지의 다섯 개 요인들이 네 가지 범주를 유의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할 때 다섯 개 구성요인들의 평균 설명량은 13%정도였고 각 구성요인별 설명량은 가까움에 대한 불편요인 17%, 신뢰요인 16%,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11%, 승인욕구요인 10% 그리고 관계에의 몰두요인 9%였다. 또한 판별분석으로 세 개의

함수식이 도출되었으나 세 번째 함수식은 유의하지 않았으며 두 개의 함수식 중 함수식 1은 신뢰요인, 가까움에 대한 불편요인,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승인욕구요인 및 관계에의 몰두요인 순으로 네 개의 범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함수식 2는 관계에의 몰두요인, 가까움에 대한 불편요인,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승인욕구요인 및 신뢰요인의 순으로 네 개의 범주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다섯 개의 애착 구성요인들이 개인을 세 개의 범주로 구분할 때 잘못 분류할 가능성은 23% 정도로 나타났으며 세 개의 범주 중 안정된 애착을 정확하게 구분할 비율은 79.23%였고 회피적 애착과 불안/양가적 애착을 정확하게 구분할 비율은 각각 56.99%와 69.25%였다. 대조적으로 다섯 개의 구성요인들이 개인을 네 개의 범주로 구분할 때 잘못 분류할 가능성은 35%였으며 네 개의 범주 중 안정된 애착을 정확하게 구분할 가능성은 69.46%, 두려워하는/회피적 52.87%, 거부적/회피적 52.47% 그리고 몰두된 애착은 64.47%였다.

여기서 오류가능성만을 고려하면 4범주의 분류가 3범주의 분류보다 마치 더 큰 오류를 범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그러나 4범주의 분류가 갖는 높은 오류가능성은 각 집단에 할당된 사례수에 기인될 가능성이 크다. 판별분석은 각 셀의 사례수가 충분해야 한다는 기본가정을 전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4범주 중 제1범주에 분류된 개인들의 수가 가장 많고(337명) 그 다음이 제2범주(100명)이며 제3범주(15명)와 제4범주(25명)에 할당된 연구대상자들의 수가 지나치게 적어 오류의 가능성이 과대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안정된 애착을 지니고 있는 개인들이 유의하게 더 많고 나머지 세개의 불안정한

집단에 할당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분류자체에
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Feeney 등(1994)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와 일치되게 애착양식질문지의 다섯 개 구성요
인들은 애착의 3범주보다는 4범주를 더 잘 설명한
다고 해석할 수 있다.

3) 3범주 및 4범주의 애착척도와 애착양식질문지
의 관계

부가적인 타당도 검증을 위해 강제선택 애착척도
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이 실시되었다. 즉
Feeney 등(1994)의 애착양식질문지를 구성하는 다
섯 개 요인들이 애착의 범주척도들인 3범주 척도와
4범주 척도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확인하
기 위한 목적으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은 3범주에 따른 애착양식질문지를 구성하는 다
섯개 요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F*값을 제시하며
사후검증(*Bonferroni*분석) 결과도 함께 보여 준다.
다섯 개 요인들의 모든 *F*값이 $p < .0001$ 수준에서 유
의하였다.

<표3> 애착의 3범주 모델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검증

구 분		3 범주				
		(1) 안정된	(2) 회피적	(3) 불안/ 양가적	<i>F</i> 값	사후 검증
신뢰요인	M	4.27	3.72	3.64	44.51	1-2, 1-3
	SD	0.66	0.65	0.69	***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	M	3.15	3.81	3.53	43.37	1-2, 1-3, 2-3
	SD	0.60	0.68	0.71	***	
승인욕구	M	3.30	3.62	3.69	18.10	1-2, 1-3
	SD	0.61	0.68	0.68	***	
관계에의 몰두	M	3.38	3.68	4.02	32.61	1-2, 1-3, 2-3
	SD	0.65	0.64	0.80	***	
2차적인 것으로 의 관계	M	3.01	3.49	3.16	23.85	1-2, 2-3
	SD	0.58	0.62	0.60	***	

*** $p < .001$

<표3>를 자세히 검토하면, 신뢰요인은 3범주 중
제1범주(안정된 애착)와 제2범주(회피적 애착), 제1
범주와 제3범주(불안/양가적 애착)에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즉 안정된 애착집단이 신뢰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회피적 및 불안/양가적 애착
집단의 점수는 유의하게 낮았으나 회피적 애착집단
과 불안/양가적 애착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 요인은 제1범주와 제2범주,
제1범주와 제3범주 및 제2범주와 제3범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제2범주인 회피적 애착집
단의 점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불안/양가적 집단
의 점수가 높았으며 안정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
았다. 승인욕구요인은 제1범주와 제2범주 및 제1범
주와 제3범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회
피적 애착집단과 불안/양가적 애착집단의 승인욕구
점수가 안정된 애착집단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관계에의 몰두요인은 제1범주와 제2범주, 제1범주
와 제3범주 및 제2범주와 제3범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불안/양가적 애착집단이 가장 높
은 관계에의 몰두 점수를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회
피적 애착집단이었으며 안정된 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또한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은 제1범주
와 제2범주 그리고 제2범주와 제3범주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제1범주와 3범주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회피적 애착집단이 2차적인 것으
로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안정
된 애착집단과 불안/양가적 애착집단 사이에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같은 결과는 안정된 애착집단은 신뢰요인에
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고 나머지 네 개의 안
정되지 못한 애착요인들에서 일관성있게 낮은 점수
를 얻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동시에 회피적 애착집
단은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과 2차적인 것으로의 관
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나머지 세 개의 요인
에서는 세 개의 애착집단 중 중간정도의 점수를 얻
는다는 것을 제시한다. 동시에 불안/양가적 애착집

단은 관계에의 몰두요인과 승인욕구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Feeney 등(1994)의 연구와도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를 제시하였을 뿐아니라 Hazan과 Shaver(1987)가 가정한 성인애착의 특성과도 일치하는 애착양식을 측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표4>는 4범주에 따른 5개 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 및 F값을 제시하며 사후검증(Bonferroni 분석) 결과도 함께 제시한다. 3범주 모델에서와 동일하게 5개 요인의 모든 F값이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4> 애착의 4범주 모델에 따른 각 요인별 차이검증

구 분		4 범주					사후 검증
		(1) 안 정 된	(2) 두려워 하는 /회피 적	(3) 거부 적 /회피 적	(4) 몰 두 된	F값	
신뢰 요인	M	4.36	3.86	3.71	3.72	33.96 ***	1-2, 1-3, 1-4
	SD	0.60	0.69	0.71	0.74		
가까 움에 대한 불편 함	M	3.08	3.38	3.78	3.83	36.95 ***	1-2, 1-3, 1-4, 2-3, 2-4
	SD	0.58	0.64	0.60	0.72		
승인 욕구	M	3.22	3.61	3.63	3.64	19.00 ***	1-2, 1-3, 1-4
	SD	0.60	0.60	0.60	0.77		
관계 에의 몰두	M	3.34	3.81	3.73	3.55	17.01 ***	1-2, 1-3
	SD	0.63	0.71	0.69	0.81		
2차 적인 것으 로의 관계	M	2.94	3.13	3.44	3.52	23.29 ***	1-2, 1-3, 1-4, 2-3, 2-4
	SD	0.56	0.51	0.65	0.76		

*** $p < .001$

<표4>에 의하면, 신뢰요인은 4범주 중 제1범주와 제2범주, 제1범주와 제3범주 및 제1범주와 제4범주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애착집단이 나머지 세 개의 안정되지 못한

애착집단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신뢰요인 점수를 얻는다는 것이다.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 요인은 제1범주와 제2범주, 제1범주와 제3범주, 제1범주와 제4범주, 제2범주와 제3범주 및 제2범주와 제4범주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몰두된 애착집단과 거부적/회피적 애착집단이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 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그 다음이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집단이었으며 안정된 애착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승인욕구 요인에서는 제1범주와 제2범주, 제1범주와 제3범주 및 제1범주와 제4범주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다시 말하면, 안정된 집단의 승인욕구요인 점수가 가장 낮고 나머지 세 개의 애착집단 즉 안정되지 못한 애착집단들은 비슷한 수준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관계에의 몰두요인에서는 제1범주와 제2범주 및 제1범주와 제3범주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집단과 거부적/회피적 애착집단의 관계에의 몰두요인 점수가 안정된 애착집단이나 몰두된 애착집단의 점수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은 1범주와 2, 3, 그리고 4범주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제2범주와 제3범주 및 제2범주와 제4범주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시 말하면 몰두된 애착집단과 거부적/회피적 애착집단이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고 그 다음이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집단이었으며 안정된 애착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상의 결과는 애착의 4범주 중 안정된 애착양식은 신뢰요인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고 나머지 네 개의 안정되지 못한 애착요인들에서 일관성 있게 낮은 점수를 얻어 Feeney 등의 결과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머지 세 개의 안정되지 못한 애착양식들은 Feeney 등(1994)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뿐아니라 Bartholomew와

Horowitz가 제안한 4범주의 애착양식 특성과도 일치하지 않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증거로서 Feeney 등(1994)의 연구에서는 두려워하는/회피적 집단의 구성원들은 신뢰점수는 낮고 다른 모든 요인들의 점수는 높으며 거부적/회피적 집단은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고 다른 요인들에서는 보통 정도의 점수를 그리고 몰두된 집단은 관계에의 몰두와 승인욕구요인에서는 높은 점수를 그리고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에서는 낮은 점수를 얻을 것으로 나타나 본연구의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또한 Bartholomew와 Horowitz의 연구에서는 두려워하는/회피적 집단은 신뢰에서 낮고 불안정과 관련된 4개의 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자기와 타인 양자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었으며 거부적/회피적 집단의 구성원들은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과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그리고 신뢰요인을 포함하여 관계에의 몰두와 승인욕구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자기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몰두된 집단은 자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반영하는 관계에의 몰두와 승인욕구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과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에서 낮은 점수를 얻어 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미 판별분석에 의해 4범주가 3범주보다 청소년들의 애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범주가 안정되지 못한 애착양식을 타당하게 구분하지 못함으로써 안정되지 못한 애착에 해당하는 문항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을 부가적으로 제시하였다.

논의

이 연구는 Feeney 등의 애착양식질문지가 청소년용 애착척도로서 타당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척도의 장점은 이성과의 낭만적 관계를

거의 경험한 일이 없는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특성을 변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애착유형에 대한 범주척도가 아닌 연속적 평정이 가능한 질문지 척도라는 것이다.

척도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한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실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먼저 척도의 신뢰도 계수를 계산하였다. 또한 타당도 검증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애착양식질문지의 구성요인을 확인하였고 판별분석을 사용하여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 중 어느 모델이 한국 청소년들의 애착을 더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부가적인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애착의 3범주 척도 및 4범주 척도와 애착양식질문지의 관계가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Feeney 등(1994)의 애착양식질문지가 한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에게 사용될 수 있기 위해서는 승인욕구요인 문항과 관계에의 몰두요인 문항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그 증거로서 우선 Cronbach alpha로 계산된 애착양식질문지의 내적 일관성계수에서 승인욕구요인과 관계에의 몰두요인이 Feeney 등(1994)의 결과보다 다소 낮은 alpha 계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타당도 검증을 위해 실시된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Feeney 등(1994)의 연구에서 도출된 요인들의 구조는 모델의 부합도를 유의하게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승인욕구요인과 관계에의 몰두요인 사이에 오차간 공변량이 가정될 수 있어 모델의 수정이 불가피하였다. Feeney 등(1994)의 연구에서도 3요인 구조와 5요인 구조를 동시에 가정하는 모호함을 보이고 있어 애착양식질문지의 요인구조 자체가 문제점을 지닐 수 있음은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일이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한국 청소년과 미국 청소년들의 애착양식질문지의 요인구조가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음이 추론될 수 있는 동시에 alpha 계수를 함께 고려하면 승인욕구요인과 관계에의 몰두요인 문항을 한국 청소년들에게 맞게 수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애착양식질문지와 애착의 3범주 모델 및 4 범주 모델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Feeney 등 (1994)의 결과는 물론 장휘숙(1997)이나 Bartholomew 와 Horowitz(1991)와 일치되게 4범주 모델이 3범주 모델보다 애착양식질문지의 다섯 개 구성요소들을 더 잘 구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모델과 타인모델의 2차원 구조를 바탕으로 네가지 유형의 애착을 구분하는 4범주 모델이 영아기의 애착양식을 그대로 반영한 안정된, 회피적, 불안/양가적 애착 양식으로 구성되는 3범주 모델보다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애착의 질적 상태를 더 잘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로 해석된다.

그러나 부가적인 타당도 검증방법으로 애착양식 질문지의 다섯 개 구성요소들이 애착의 3범주척도 및 4범주척도에서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를 확인한 결과, 다섯개 구성요소들은 3범주 척도의 세가지 애착양식은 유의하게 구분할 수 있었으나 4범주 척도의 네가지 애착양식에 대해서는 유의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변량분석에 의해 네 개의 범주들간에 유의한 차이들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된 애착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개의 애착양식에서 Feeney 등(1994)의 결과는 물론 Bartholomew 와 Horowitz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구분하는 데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예를들면 두려워하는/회피적 애착은 신뢰요인 점수는 낮고 승인욕구 점수 및 관계에의 몰두 점수는 높으며 가까움에 대한 불편함 점수와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점수는 보통 정도여서 신뢰요인 점수만 낮고 다른 모든 요인들의 점수가 높다고 보고한 Feeney 등의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거부적/회피적 애착은 신뢰요인 점수만 낮고 나머지 네 가지 요인들의 점수는 모두 높았으나 Feeney 등 (1994)의 연구에서는 2차적인 것으로의 관계요인 점수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몰두된 애착은 신뢰요인 점수와 관계에의 몰두요인 점수가 낮고 나머지 세 개의 요인들의 점수는 높게 나타났으나 Feeney 등의

연구에서는 관계에의 몰두요인과 승인욕구요인 점수가 높아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범주의 애착양식들이 지니고 있는 이론적 특성들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미 판별분석에 의해 애착의 4범주가 3범주보다 청소년들의 애착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범주 중 안정되지 못한 애착에 해당하는 세 개의 범주가 애착의 이론적 가정과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안정되지 못한 애착을 설명하는 문항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이 부가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이상의 모든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Feeney 등 (1994)의 애착양식질문지가 한국 청소년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타당한 질문지 애착척도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섯가지 구성요인 중 관계에의 몰두요인과 승인욕구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음이 제안될 수 있다.

참고문헌

- 장휘숙(1997). 성인애착의 3범주 모델과 4범주 모델의 비교. *한국심리학회: 발달*, Vol. 10, No. 2, 123-138.
- Ainsworth, M. D., Blehar, M. C.,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16, No. 5, 427-453.
- Bartholomew, K. (1990). Avoidance of intimacy: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 147-178.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1*, 226-244.
- Bowlby, J. (1969). *Attachment* (Vol. 1). Basic Books, New York.
- Brennan, K. A., Shaver, P. R., & Tobey, A. E. (1991). Attachment styles, gender, and parental problem drin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451-466.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Feeney, J. A., & Noller, P. (1991). Attachment style and verbal descriptions of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187-215.
- Feeney, J. A., Noller, P., & Callan, V. J. (1994). Attachment style, communication and satisfaction in the early years of marriage. In K. Bartholomew & D. Perman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dult attachment relationships* (pp. 269-308). London: Jessica Kingsley.
- Feeney, J. A., Noller, P., & Hanrahan, M. (1994). Assessing adult attachment. Sperling, M. B., & Berman, W. H. (Eds.), *Attachment in adults*.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enny, M. E. (1987). The extent and function of parental attachment among first yea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17-27.
- Kirkpatrick, L. A. & Davis, K. E. (1994). Attachment style, gender and relationship stability: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66*, No. 3, 502-512.
- Lapsley, D. K., Rice, K. G., & Fitzgerald, D. P. (1990). Adolescent attachment, identity, and adjustment to colleg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ity of adaptation hypothesis.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8*, 561-565.
- Patterson, J. E., Field, J., & Pryor, J. (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 579-600.
- Paterson, J., Pryor, J., & Field, J. (1995). Adolescent attachment to parents and friends in relation to aspects of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4*, 365-376.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 (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s and peer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1*, No. 4.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59*, No. 5, 971-980.

韓國心理學會: 發達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Developmental

1999. Vol. 12, No. 2, 81-92.

The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for Adolescents

Hwee Sook, Jang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m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verify whether the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developed by Feeney, Noller & Hanrahan(1994) can be a attachment measure suitable for Korean adolescents or not. Reliability data were collected on this 40-item measure. For validity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discriminant-function analysis were carried out. Also the relationship of the three-category and four-category attachment scale with the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was analyzed through one-way ANOVA.

Results tend to suggest that the Attachment Style Questionnaire is not suitable for Korean adolescents without modification of items in Need for Approval factor and Preoccupation with Relationships factor.